

전후 재일조선인 에스닉 신문 연구*

— 「민단신문」과 「민주신문」을 중심으로 —

엄기권**

이경규***

(e-mail : d-cometrue@hanmail.net · lk5120@deu.ac.kr)

< 목 차 >

1. 들어가며
2. 민단신문의 창간과 조련계열 미디어와의 대립
3. 전후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한 일본미디어의 보도 양상
4. 민주신문으로 재편되는 민단신문
5. 나오며

キーワード : 民団新聞(Mindan Shimibun), 民主新聞(Minshu Shimibun), 民団(Mindan), 朝連(Choren), 在日朝鮮人(Zainichi Koreans), 에스ニック新聞(ethnic newspapers)

1. 들어가며

본고는 전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발행한 신문 중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이 발행한 「민단신문」과 「민주신문」을 중심으로 전후의 재일조선인들의 미디어 활동의 모습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후 재일조선인들의 미디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출판된 윤희상 『그들만의 언론』(2006)과 고바야시 소메이 『재일조선인 미디어공간-GHQ점령기의 신문발행과 그 다이너미즘』(2007)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좀처럼 관련 연구를 볼 수 없다가 최근에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체 및 기사명 색인 제1권(1945.8-1969.12)』(2018)과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한남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제1저자

*** 동의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교신저자

『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2018)과 같은 1차 자료의 데이터화와 논문집과 같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창간된 지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일조선인 연구 영역에서 좀처럼 조명 받지 못했던 ‘민단신문’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의 재일조선인의 미디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는 민단신문이 발행을 시작한 1947년부터 민주신문으로 재편되는 1948년 전후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민단 또한 그들의 정치노선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즉 민단신문에서 민주신문으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민단의 정치노선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1947년 2월 21일에 제1호를 시작으로 매주 발행된 「민단신문」은 1947년 10월 25일자 20호를 발행한 후, 제호를 「민주신문」으로 변경하여 같은 해 11월 1일에 21호를 재발행하게 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민단신문의 발행 초기 지면을 중심으로 사설란의 경향을 살펴보고 민단신문과 조련 측 미디어간의 상호 비판 기사들을 검토하여 민단신문의 주장과 지향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메이저 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과 대응기사도 시야에 넣어서 해방 직후 일본에서의 재일조선인들의 미디어 활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2. 민단신문의 창간과 조련계열 미디어와의 대립

전후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1945년 10월 15일 결성된 좌파 중심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과는 노선을 달리하여 1945년 11월 16일 우파 민족주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건청)이 결성되었다. 뒤이어 오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 아키타 형무소에서 석방된 박열을 단장으로 하는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이 1946년 1월 20일 결성되었다. 건동 역시 좌파 중심의 조련에 대항하는 성격의 단체였다.¹⁾ 하지만 11월 3일에 건동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건청과 소수 단체들을 규합하여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박열을 단

1) 朴慶植(1989)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pp75-76.

장으로 부단장은 건동의 부위원장이던 이강훈이 맡았고, 위원장에 고순흙, 부위원장은 건청의 위원장인 홍현기가 취임을 하였다. 민단 결성 과 함께 건동은 해산을 하였지만 건청은 1950년 8월 29일 해산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이렇게 결성된 민단은 ‘재류동포의 민생안정’, ‘재류동포의 교양향상’, ‘국제친선’을 목적으로 내걸고, 정치단체가 아닌 재일동포의 총의와 요구에 의거한 자치조직임을 주장하였다.²⁾ 1947년 정월부터 민단의 중앙총본부(중총)는 앞으로의 활동방침에 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들을 선출하는 등 중총진영의 정비에 나선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1월 20일에는 중총의 기관지로서 민단신문이 발행되었다. ³⁾ 발행 겸 편집은 최준이 담당했고 일주일 간격으로 발행되었다. 민단신문의 지면은 발행 초기 3단 또는 4단을 혼용하며 16페이지의 분량으로 발행되었으나, 제15호부터 4페이지 10단으로 체계화되어 중간호인 제20호까지 계속되었다. 집필진으로는 민단의 단장인 박열이 주로 글을 썼고 무기명으로 조선의 현 상황과 재일조선인 관련 단체들의 동향 등을 무기명으로 보도하였다.

창간호에 게재된 창간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방이후의 현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일부 자칭 지도자 권리욕에 눈먼 무리들과 모리배 그리고, 그 앞잡이의 선동에 의해 순진한 민중의 열정은 낭비되고 쟁취한 민족적 명예와 국제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불행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렸다. 심한 자는 혁명 선배에게 민족반역자, 반동 등의 욕설을 지껄이는 행동을 일삼으며, 자신이 범한 과오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급급해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가운데 창립된 민단은 이러한 죄를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온갖 욕설의 폭풍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박열이 결의가 되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반동의 소굴이라고 공격받았다. ⁴⁾

전후 ‘우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민단은 조련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진영으로부터 ‘민족반역자, 반동’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로인해 조련에서 분리되어 나온 ‘우파’중심의 단체인 민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1947년 2월 21일에 민단

2) 전계서, 朴慶植(1989)p.81.

3) 『民國30年史』(1977)p.41.

4) (1947.2.21. 第1号1面) 「創刊の辭」 「民團新聞」

신문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창간사에서 민단신문의 목적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다.

거류민단은 창립 이래 오늘날까지 삼개월간 묵묵히 복잡한 국제정세와 점령하의 특수한 정세에 놓인 재류동포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도록 민단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다. 물론 거류민단자체가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정치운동에 편중하지 않는 것처럼, 민단신문도 어떠한 주의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민생문제, 문화향상, 국제친선의 실적을 올리도록 매진할 것이다.⁵⁾

민단 자체가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정치운동이 아닌 것처럼 민단신문 또한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사상에 편중되지 않고 오로지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만 매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단신문의 창간호에는 ‘거류민단은 과연 강도단 반동단체인가?’라는 문장이 실려있다.

「조선은 민주주의 여러 단체와 「히데하라」 내각과 싸웠다. 이것은 앞으로 변하지 않는 방침이다. 과거 36년간과 전적으로 본질이 같은 일본정부의 탄압하에서 그 위대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60만 동포의 생활권 옹호를 위해서, 조련은 굴복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이상은 「민청기행」 제1호 2면에 게재된 「거류민단의 박근혜에게 보낸다」라는 강영길 씨의 반박문과 같은 기사의 한 절이다.⁶⁾

강영길이라는 인물과 민청 그리고 조련이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사에서 재일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도 조련과 같은 의견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조련은 민단을 반동단체로 규정하고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영길 또한 같은 글에서 민단을 불량한 사기단체이고 반동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위의 글은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데에 대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외국 정부의 내정에 간섭하여 반동정부라고 비난하는 이유와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즉, 해방 전과 해방 후의 일본을 동일시하여 비판하는 것은

5) 전계서 주4.

6) (1947.2.21. 第1号6面) 「居留民団は果して強盜団反動団体であるか?」 「民団新聞」

결국 예전과 같이 일본정부의 ‘노예’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방 또한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가능한 한 일본정부와는 친선관계를 맺고 일본정부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은 본국정부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일본에 남아 있는 재류 동포는 국제정세의 동향과 보조를 맞추면서 생활을 해 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창간사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민단의 ‘정치이념이나 정치운동에 편중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단신문을 향한 조련의 비판기사에 대한 대응 기사는 그 후에도 종종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 민단신문 창간호 6면에는 ‘조선인생활권옹호위원회뉴스를 읽고’라는 기사가 보인다.⁷⁾ 이 글에서 거류민단에 대해서 일부 단체가 친일파민족반역자의 그룹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단체만이 대표 단체인 마냥 행동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이 조선인생활권옹호위원회뉴스에 실려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거류민단이 조련을 지금까지 반동단체라 부르지 않는 것은 조직 내에 반동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련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있고 조국동포를 위해 일한다는 정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생활권옹호회도 하나의 정치운동에 편중하거나 한 단체를 고집하지 말고 전 동포들을 위해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47년 2월 28일 2호 2면에는 ‘거류민단결성에 조선인연맹을 떠나며’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⁸⁾ 필자는 글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인연맹에 가입해 있다가 거류민단결성을 계기로 조선인연맹을 탈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에서 필자는 초기에 조련은 모든 재일동포를 대표하는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대동단결을 부르짖으며 정치이념에 치우친 나머지, 독선주의, 배타주의적인 단체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수많은 반동과 민족반역자를 만들어내고 인민공화국을 사수하여 신탁통치문제에 끼어들어 결국에는 거류민단박멸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같은 2월 28일 2호 3면에도 2월 1일 전국 총과업을 거론하면서 해방신문 1월 25일자 가와사키 인민대회에서의 배연석(裴烟錫) 씨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그 내용은 ‘조국독립을 방해하고 있는 이승만 일파와 일본에서도 동포의 단결을 방해하는 박열 일파인 반동파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7) (1947.2.21. 第1号6面) 「朝鮮人生活權擁護委員會ニニュースを讀んで」 「民団新聞」

8) (1947.2.28. 第2号2面) 「居留民団結成に際し朝鮮人連盟を去りつつ」 「民団新聞」

것이였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을 올바른 애국자라며 자칭하며 기아와 불안에 허덕이는 동포들의 생활권을 옹호한다며 타국 정당의 앞잡이가 되어 기고만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지금의 일본정부에 대한 투쟁과 해방전의 투쟁은 전혀 다른 것임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3월 20일자 3면에는 ‘건청성명서’가 게재되는데 내용은 조련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요구를 비난하는 것이였다.⁹⁾ 재일동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는 것은 재일동포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재산세의 면제와 준 연합국민의 대우뿐이라고 주장한다.

유엔에 의해 남한 단독선거가 가시화 되자, 민단신문 6월 30일 지면에는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찬성하는 해방신문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¹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은 어쩔 수 없지만, 선전에 목적이 좌우되어 버리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이다. 즉,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정을 구실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그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 비판한다. 또한 결국 그것은 독선주의의 대두이고 정권욕의 발로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같은 호 2면의 주장에는 박열도 남과 북에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남한임시정부 또한 38선 철폐가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¹¹⁾

<표1> 「민단신문」에 게재된 주된 조련 비판 기사

날짜	제목	내용
2/21	조선인생활권옹호위원회 뉴스를 읽고	조선인생활권옹호위원회 뉴스에 대한 반박문
2/28	거류민단결성에 조선인연맹을 떠나며	조련 김천해에 대한 반박문
2/28	총파업과 조선인단체	1월25일자 해방신문에 대한 반박
3/20	민족통일전선과 3·1운동	2월13일자 국제타임즈 사설 비난
3/20	건청성명서	조련비판
5/15	올바른 것과 솔직한 고백	학생동맹 통지문과 조련오사카본부 김민화 담화 비판
6/30	미소공동위원회와 우리의 태도	6월1일 해방신문 사설 비판
8/9	두 개의 모순	7월15일 민청시보의 주장 비판

9) (1947.3.20. 第3号3-4面) 「建青声明書」 「民団新聞」

10) (1947.6.30. 第9号1面) 太林人 「米ノ共同委員会と我等の態度」 「民団新聞」

11) (1947.6.30. 第9号2-3面) 朴烈 「主張 朝鮮獨立と南鮮臨時政權の動き」 「民団新聞」

이와 같이 민단신문에는 조련과 민청 측의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비판하는 기사를 창간 이후 꾸준히 게재해 왔다. 위와 같은 기사들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민감히 반응하며 점차 조련과는 차별화된 정치노선을 구축해 나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3. 전후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한 일본미디어의 보도양상

민단신문에는 조련을 비판하는 기사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의 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3대 메이저 신문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그리고 요미우리신문의 1945년 8월 이후부터 1950년 전후의 재일조선인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아사히신문은 사실과 목소리란을 통해 재일조선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해 왔다. 1946년 6월 18일자 목소리란의 ‘조선인의 도의’를 시작으로, 1946년 7월 13일자 사설 ‘조선인의 취급에 대해서’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글이 바로 다음 날인 7월 14일자 목소리란에 ‘조선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다.

1948년 이후에도 아사히신문에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문제를 거론하며 서로의 이해를 촉구하는 4월 28일자 사설 ‘일선(日鮮)의 상호이해가 필요’와 8월 1일자 목소리란의 ‘조선인 문제’와 1949년 5월 8일자 사설 ‘재류조선인의 생활문제’ 등과 같은 기사도 보인다. 하지만 1949년 9월 조련이 강제해산 된 후에는 조련 해산 관련 기사들과 함께, 10월 21일자 사설 ‘대한민국거류민단에 바란다’와 같이 민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가 게재된다.¹²⁾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다른 일본의 3대 신문 중에서 재일조선인 관련 기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게재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기사는 1949년 12월 3일 석간 사설 ‘조선인 문제’는 조선인 절도단을 대거 검거했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열악한 일본의 경제상황에 비해 조선의 식량 상황이 좋다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1950년 4월 3일자 석간에는 ‘폭력단사냥’이라는 ‘시평’에 이틀 전에 있었던 경찰의 폭력단 검거를 언급하며

12)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체 및 기사명 색인 제1권』 (2018)p813.

재일조선인의 높은 범죄율을 지적하며 조선인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¹³⁾

마지막으로 마이니치신문을 보면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비해 재일조선인 관련 기사의 게재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재일조선인에 관한 내용은 사설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주로 투고란을 통해 재일조선인관련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일본의 주요 신문미디어들에 대해 민단신문 측은 관련 반박문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민단신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조선신문¹⁵⁾ 1946년 8월 30일자 지면에는 ‘사실을 무시하는 폭론-아사히신문 사설의 경솔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려있다. 사설에서는 아사히신문 1946년 7월 30일자 지면에 실려있는 사설‘조선인 취급에 대하여’¹⁶⁾를 비판하고 있다. 사설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르거나, ‘군수생산부문에 방대한 노동력을 제공한 것’ 등에 대해 조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암시장과 같은 전후의 조선인들의 생활태도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사히신문의 사설에 대해서 각 항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마지막으로 ‘근본문제를 무시한 아사히신문의 논설은 두 민족이 가져야 할 본연의 융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오히려 서로를 반목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¹⁷⁾

또한 제호를 민단신문에서 민주신문으로 변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1947년 11월 22일자 3면에는 ‘경솔했던 것을 사죄 요리우리 신문의 기사에 대해서(일단해결)’¹⁸⁾라는 기사가 게재된다. 이 기사에서 신문의 사명을 망각한 최근의 일본신문이 다시 자신들의 이익과 순간의 감정, 그리고 시국편승에 의한 보도로 예전의 군국주의 시대의 어용지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예로 같은 해 11월 10일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밀수무역 조선이 암거래의 간선’이라는 기사를 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기사는 1947년도 1월부터

13) 전개서 주12, p.850.

14) 전개서 주12, p.788.

15) 현재 열람가능한 신조선신문은 창간호인 1946년 8월 30일자 지면뿐이다. 발행과 편집은 오우영(吳宇泳)이 담당했다. 지면은 총 4면으로 월간으로 발행된 일본어 신문이었다. 편집후기에는 신조선신문은 사정이 생겨 「自由論戰」을 신조선신문으로 제호를 바꿔 재창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6) (1946.7.30. 1面) 「朝鮮人の取扱について」 「朝日新聞」

17) (1946.8.30. 創刊号3面) 「事實を無視する暴論-朝日新聞社説の輕挙に与ふ」 「新朝鮮新聞」

18) (1947.11.22. 第24号3面) 「輕率であつたことを謝罪 読売新聞の記事に就いて 一応解決」 「読売新聞」

9월까지의 밀수범죄는 총 308건으로, 총 1,413명의 검거된 인원 중에서 조선인이 854명으로 일본인 286명보다도 많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조선과 조선인을 비방하고 있다는 조선인들의 건의가 민단으로 쇄도하고 있어 그에 대해 신문사에 항의한 결과,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사과를 받아내고 잘 해결이 되었다며 글을 끝맺는다.

이와 같은 민단신문은 조련에 대한 반박문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선인들의 생활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본사의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도하고 있었다.

4. 민주신문으로 재편되는 민단신문

창간이후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1947년 10월 25일자 민단신문 지면에 갑자기 민단신문의 편집장이자 발행인인 박준의 ‘석별사’가 게재된다. 석별사에서 박준은 창간이래 민단신문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민단신문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지 우리는 「민단신문」이 최근의 내면적 사정과 외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드디어 거대해지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이 신문의 배경을 이루는 민단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중략) 이 신문의 「민단」의 두 글자가 그런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웬지 익숙해질 수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민단신문」의 독자로서의 대조범위는 「민단」의 두 글자에 친근함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한정되었던 감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¹⁹⁾

‘최근의 내면적 사정’과 ‘외부로부터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민단’이라는 두 글자로 인해 독자층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독자층 확대에 대한 어려움은 당연히 민단의 활동과 지배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해 10월 1일에 개

19) (1947.10.25. 第20号1面)朴準 「惜別の辞」 「民団新聞」

최된 제3회 정기대회에서 민단의 정치노선을 확립하고 남한단독정부수립에 대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단의 정치적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와 같은 박준의 석별사가 게재되어 있는 같은 지면에는 민단신문을 ‘민주신문’으로 다시 창간한다는 광고문도 보이는데, ‘민주를 강조하는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들 자신의 독재로부터의 이탈이기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호를 변경하여 처음 발간된 민주신문에는 민주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단은 정당이 아니다. 올바른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주자치, 호부상조의 제일 거류민단의 연합체이다(중략)항상 중용의 길을 견지하여 사실을 올바르게 보도하고 억지나 다른 목적이 있는 선전을 배제한다. 그리하여 민족이 사건을 올바르게 받아드리는 비판력과 교양육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민주신문의 역할은 크다.²¹⁾

민단은 정치적 단체가 ‘중용의 길’을 가고자하는 신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조련과 같은 정치적 단체를 비판하면서 민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주장과 같은 페이지에는 민주신문사 사장인 황성익의 글이 눈에 띈다. 황성익은 ‘조선독립을 기념해서 대중과 함께 나가자’라는 글에서 신문이 대중의 공기(公器)인 이상, 특정 단체의 산하에 있는 기관지라고 할지라도 그 단체의 선전용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민주신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신문」은 이 노선을 견지하여 우여곡절 없이, 올바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옹호조장하여 민족의 오랜 숙원을 방해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눈물을 참아 신(神)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한편, 정의를 쪼먹는 민족반역자라도 종래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원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²²⁾

20) 전계서 주3, p.59.

21) (1947.11.1. 第21号1面) 「主張 新聞のあり方」 「民主新聞」

22) (1947.11.1. 第21号1面) 黄性弼 「改題の言葉 朝鮮獨立を記念して大衆と共に進まん」 「民主新聞」

전후 민족반역자라고 비판받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민단(신문)은 그를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반역자’에 대한 민단의 자세는 민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민단신문에는 구로오카라는 필명의 ‘40년의 태풍’이라는 소설이 연재된다. 구로오카는 소설 ‘기아도’로 유명한 장혁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일본으로 귀화를 하게 되지만, 전후에는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민단신문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민단신문에는 젊은 조선 청년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막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40년의 태풍’이라는 작품이 1947년 2월 21일 창간호부터 민주신문으로 제호가 바뀌기 직전인 1947년 10월 25일까지 총 17회 연재된 후 민주신문의 지면에서 장혁주의 작품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장혁주가 구로오카라는 필명으로 같은 해 9월 20일에 ‘이광수 씨에 대해서’라는 글을 투고하고 있다.

이씨를 위해서 변호하자면 이씨가 마음에 없이, 조선민족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은 명확하다.(중략) 이씨는 역시 한 명의 저널리스트이고 그 때 그 때의 시류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바심으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중략) 이씨는 결코 진심으로 일본제국주의에 굴복한 것은 아니고, 조선인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문학자는 노고는 많지만 보답은 적은 불쌍한 존재이다.(중략) 문필업자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이광수 씨나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다수의 문학자를 조국조선은 반드시 옹호해서 조선의 문화건설에 한 명이라도 많은 유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²³⁾

전후 민족반역자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장혁주가 같은 처지에 있는 이광수를 옹호하는 글을 민단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비록 식민지 시기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조선의 문화건설을 위해서는 이광수와 같은 문학자들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혁주의 태도는 앞서 본 민주신문사 사장의 황성익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23) (1947.9.20. 第16号4面)黒丘 「李光洙氏に就て」 「民団新聞」

<표2> 「민주신문」에 게재된 초기 문학 관련 기사

호수	날짜	지면	필자	기사명
제24호	1947년 11월 22일	4면	白楊生	문학자의 사명
제25호	1947년 12월 6일	4면	蓮山	조선의 예술
제26호	1947년 12월 13일	4면	蔡生	모파상에 대해서
제28호	1948년 1월 3일	7면	金昌奎	문학의 상도(常道)
제32호	1948년 2월 7일	3면		문학에 대한 기대-조선문학의 장래
제33호	1948년 2월 14일	4면		절망의 유행-문학에 나타난 근대성
제34호	1948년 2월 21일	3면	洪建靑	알려지지 않은 작가
제42호	1948년 4월 24일	4면		“후예의 거리” 작가-김달수 비망록

전후 제일조선인들의 문학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문학 활동이 활발한 조련계열 미디어에 비해서 민단계열 신문에는 문학관련 내용은 적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민단신문에서 민주신문으로 재발행이 되고 나서는 매호 문학작품과 문학관련 기사가 실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단 계열 신문의 문학 활동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5. 나오며

전후 일본에서 제일조선인들이 발행한 많은 신문들 중에서 민단신문의 경우 조련계열 신문 미디어들에 대한 비판 기사를 활발히 게재하며 신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독자층을 넓혀 갔다. 조련계열 미디어들이 강력히 ‘친일파와 우파’들을 배제하고 비난을 했던 것에 비해, 민단에서 발행한 민단신문은 특정 주의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집필진과 독자층을 확보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련과는 다른 정치노선을 확립해가는 민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민단신문은 1947년 10월 25일자 제20호를 마지막으로 종간을 맞이하게 된다. 종간호에서 민단신문의 편집 겸 발행을 맡았던 박준은 민단신문의 ‘민단’이라는 두 자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선입관을 주어 독자층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야를 더 넓히고 독자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박준의 주장은 제호를 「민주신문」으로 변경해 1947년 11월 11일부터 재발행되는 후속지로 이어진다.

【参考文献】

- 『民団30年史』(1977)p.41, p.59
朴慶植 (1989)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三一書房, pp75-76, p.81
小林聡明 (2007) 『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GHQ占領期における新聞発行とそのダイナミズム』風響社
윤희상(2006) 『그들만의 언론』천년의 시작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재 및 기사명 색인 제1권』 (2018)p.788, p.813, p.850

신문기사

- (1947.2.21. 第1号1面) 「創刊の辞」 「民団新聞」
(1947.2.21. 第1号6面) 「居留民団は果して強盜団反動団体であるか？」 「民団新聞」
(1947.2.21. 第1号6面) 「朝鮮人生活權擁護委員會ニュースを読んで」 「民団新聞」
(1947.2.28. 第2号2面) 「居留民団結成に際し朝鮮人連盟を去りつつ」 「民団新聞」
(1947.3.20. 第3号3-4面) 「建青声明書」 「民団新聞」
(1947.6.30. 第9号1面)太林人 「米ソ共同委員會と我等の態度」 「民団新聞」
(1947.6.30. 第9号2-3面)朴烈 「主張 朝鮮獨立と南鮮臨時政權の動き」 「民団新聞」
(1946.7.30. 1面) 「朝鮮人の取扱について」 「朝日新聞」
(1946.8.30. 創刊号, 3面) 「事實を無視する暴論一朝日新聞社説の輕挙に与ふ」 「新朝鮮新聞」
(1947.9.20. 第16号4面)黒丘 「李光洙氏に就て」 「民団新聞」
(1947.10.25. 第20号1面)朴準 「惜別の辞」 「民団新聞」
(1947.11.1. 第21号1面) 「主張 新聞のあり方」 「民主新聞」
(1947.11.1. 第21号1面)黄性弼 「改題の言葉朝鮮獨立を記念して大衆と共に進まん」 「民主新聞」
(1947.11.22. 第24号3面) 「輕率であつたことを謝罪 読売新聞の記事に就いて 一応解決」 「読売新聞」

신문

- 「民団新聞」
「民主新聞」

논문 투고 일자 : 2018. 06. 24. 논문 심사 일자 : 2018. 07.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8. 03.
--

 <要旨>

 戦後在日朝鮮人のエスニック新聞研究
 — 「民団新聞」と「民主新聞」を中心に —

嚴基権 · 李京珪

本稿は、戦後日本に於ける在日朝鮮人が発行した新聞の中で、特に民団が発行した「民団新聞」と「民主新聞」に光を当てる。これらの新聞を中心に戦後の在日朝鮮人達のメディア活動の様子やその意味に迫った。

戦後、日本で在日朝鮮人が発行した多くの新聞の中で民団新聞の場合、朝連系の新聞に対する批判の記事を活発に掲載し、新聞の独立性を確立しつつ、読者層も増やした。朝連系の新聞は強力に「親日派と右派」を排除し、非難を加えたのに対し、民団で発行した民団新聞は特定の主義主張に偏らずいろんな執筆陣と読者層を確保しようと努めたように見える。民団新聞は、1947年10月25日付の第20号を最後に終刊を迎えた。終刊号で編集人は、「民団」という二文字がいろんな意味で先入観を与え読者層にある程度の限界があったと訴えた。このような限界を克服するためか、題号を「民主新聞」に変更し1947年11月11日から再発行することになる。

 A Study on the Ethnic Newspapers of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
 — Focusing on the *Mindan Shimbun* and *Minshu Shimbun* —

Eom, Ki-Kweon · Lee, Gyeong-Gyu

This paper examines the state of the media activities of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 focusing on *Mindan Shimbun* and *Minshu Shimbun* published by Mindan in postwar Japan.

Among the many newspapers published by Zainichi Koreans in postwar Japan, the *Mindan Shimbun* actively criticized the newspapers of Choren in their publications and expanded their readership by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newspaper.

The *Mindan Shimbun*, published by Mindan, seems to have tried to secure a variety of writers and readers without resorting to the claims of certain states, while the newspapers of Choren strongly ruled out the “pro-Japanese and rightists”. The *Mindan Shimbun* dated October 25, 1947 was the last of the 20th issue. Park Jun, who was in charge of editing and publishing the *Mindan Shimbun*, pointed out that *Mindan Shimbun*, “Mindan,” offered misleading preconceptions in various ways, and that the readership was also limited to some extent. He further stated that the future should be extended and the readership expanded. This allegation by Park Jun changed his name to “*Minshu Shimbun*”, which was followed by a reissue from November 11, 1947.